

中國本位文化와 全盤西化 논전

辛 勝 夏*

<목 차>

1. 서언
 2. 배경으로서의 新生活 運動과 文化建設 運動
 3. 중국본위의 문화건설선언과 중국본위문화
 4. 全盤西化論의 등장 배경과 의미
 5. 전반서화론자의 중국본위문화론 비판
 6. 중국본위문화론자의 전반서화론 공격
 7. 논전의 의의
 8. 결론
-

1. 서 언

1935년 전후에 문화 사상계에 本位文化와 全盤西化의 논전이 있었다.¹⁾ 이는 5.4 신문화 운동이래 중서문화논전의 계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된 것이었다. 즉 중서문화 논전은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었다면, 중국본위문화와 전반서화 논전은 중서문화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에서 떠나 중국문화를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 서양문화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냐의 것인데 수용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하여야 한다는 전반서화의 주장이다.

즉, 5.4시기 중서문화의 논전은 단순히 문화의 우월성, 득실 등 과거

* 고려대 동양사학과 교수.

1) 이 논전에 참여하였던 글은 약 150여 편에 달한다.

의 것을 검토하는데 그쳤다면, 30년대 중기의 본위문화와 전반서화 논전은 앞으로 중국이 정립하여야 할 문화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논전은 앞서의 논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재론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5.4시기의 중서문화논전은 엄격한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색채는 없었다. 당시 정치적 환경, 즉 中華民國 수립이래 정치적 불안정과 袁世凱의 帝制運動이 일어나면서 복고적인 흐름이 있었으며, 집권자는 이를 옹호하기 위하여 사상적으로 억압을 받는 상황아래 이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본위문화와 전반서화의 논쟁은 남경 국민정부가 剿共과정에서 反共·防共·限共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 신생활 운동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집권자가 스스로를 위하여 들어 내놓고 제기한 점에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5.4이후 한동안 잠잠하였던 중서문화 논전은 중국본위문화와 전반서화 논쟁으로 재연되었으며 학술 문화 사상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물론 중국본위문화에 찬성한다고 전반서화론에 대하여 반대한 것은 아니고 본위문화에 반대하여도 전반서화에 반대하고 전반서화에 반대하여도 본위문화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논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중국인들에게 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2. 배경으로서의 新生活 運動과 文化建設 運動

제1차 대전이후 독일과 이탈리아가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치권으로 신속하게 부흥된 이유에 대하여 蔣介石은 주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북벌이 완성된 후 통일된 중앙정부가 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시련

을 겪어야 하였다. 특히 북벌이후 각지의 군대가 중앙정부에 불만을 품고 대항하였으며²⁾ 정치적으로도 중앙에 대항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다.³⁾ 따라서 중앙정부로서는 전통적 권위의 중심을 잃게 되었다. 신생활 운동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도덕을 새롭게 세워 국민정부의 영도권을 확립하는데 있었다.

9.18사변이후 청년학생들은 抗日을 청원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이들은 抗日救國會 혹은 民衆抗日大會를 발기하여 국민정부가 있는 남경으로 와 청원하면서 외교부를 파괴하고 외교부장 王廷正이 구타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특히, 중국국민당은 先安內後攘外의 국책을 내세워 동북으로 침략해 오는 일본과 작전을 하지 않고, 中共에 대한 剿共作戰에 주력하게되자 각지 청년들의 정서가 갈수록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격화되었다.

특히 蔣介石은 중국공산당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하여 ‘三分軍事, 七分政治’의 방침을 취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1933년 9월에 군사적으로 제5차 초공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편 생활 문화적으로도 圍剿을 동시에 진행시키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신생활 운동이다. 즉 예의엄치로 간악한 공산당 무리를 격파하고 검소하고 청결한 생활로 공산당의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타파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⁴⁾

1934년 2월 19일에 장개석은 南昌에서 제5차 초공작전을 펴면서 국

2) 1929년 桂系 李宗仁이 호남에서 반항, 계속하여 馮玉祥이 하남에서 張發奎가 호북에서 石友三 唐生智도 반항하고, 1930년에는 지방군벌 聶석산·풍옥상·이종인이 연합하여 중앙에 반항하였다.

3) 1930년 9월에 汪精衛·鄒魯·謝持 등이 閻錫山과 北平에 확대회의를 조직하고 국민정부를 조직하였으며, 1931년에는 광둥이 독립을 선포하여 별도의 국민정부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4) 표면적으로는 사회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이었던 점을 명확히 해준 것은 1937년 抗日戰爭이 시작되면서 이 운동은 抗戰과 결합되어 주로 절약 헌금, 전지 봉사, 난민 봉사 등을 해왔다.

민당의 군·정 고급인사들이 참가한 行營의 總理紀念周의 자리에서 “신생활 운동”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바로 신생활 운동촉진회를 조직하고 스스로 회장이 되어 직접 이 운동을 추진하여 나갔다. 장개석은 계속하여 두달 동안에 여섯 차례에 걸쳐 신생활 운동에 관하여 연설하여 반복해서 신생활 운동의 뜻을 설명하고 힘써 신생활 운동을 하라고 고취하였다.

7월 1일에 남창의 신생활운동촉진회를 신생활운동촉진회총회로 개편하여 전국 신생활 운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물론 장개석이 회장, 宋美齡이 부회장이 되고 朱家驊·張治中·邵力子 등 51명을 총회 지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新生活運動綱要》·《新生活運動須知》 등과 같은 책자를 펴내 신생활 운동의 기초를 정하였다. 국민당 중앙에서도 尊孔祀聖의 결의를 통과시키고 매년 8월 27일을 孔子誕生日로 정하여 기념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각 지방에서도 성대한 기념대회를 갖도록 하였다.

신생활 운동이란 전체 국민의 衣食住行을 민족고유의 도덕인 예의염치에 부합되도록 하는 운동이다. 즉 예의염치의 규율 생활을 제창한 것으로, 이 운동의 중심 준칙은 禮義廉恥 4자였다.⁵⁾ 장개석은 가정교육이건 학교교육이건 군대교육과 사회교육 모두 의식주행으로 시작이 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든 생활이 예의염치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표준은 전국 국민이 整齊·清潔·簡單·素朴·迅速·確實의 여섯 항목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인이 모두 문명인이 되고 각각 국가의 良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장개석은 신생활운동의 의의와 목적에서 최후의 목적은 바로 전국 국민의 생활행동을 整齊劃一의 4자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제획일의 네 글자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현재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는 “군사

5) 禮는 규칙 규율이며, 義는 정당한 행위이며, 廉은 시비를 판별하는 것이며, 恥는 자기 행위에 대한 각오이다.

화”이다.⁶⁾

신생활 운동은 각지에서 비록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다. 신생활 운동 3주년에 즈음하여 장개석은 규칙을 지키고 청결한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으며 농촌을 개량하고 국산품의 제창, 위생·검약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였다.⁷⁾ 그리고 신생활 운동의 성과는 ‘장개석이 전 인민의 마음가운데 영도적 지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통일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이다.⁸⁾ 따라서 신생활 운동의 시작은 표면적으로 도덕성을 중시하는데 있었는데, 운동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간여가 늘어나 결국 이 운동은 점차 정치성으로 변질되어갔다.

남경 국민정부에서 신생활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陳立夫는 중국문화건설문제를 제기하고 문화건설운동을 고취하였다. 진립부는 1934년 4월 16일에 남경시정부 확대기념주에서 「文化建設의 前夜」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문화건설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진립부는 그해 10월 10일에 《文化建設》 월간을 창간하여 「中國文化建設論」을 발표하였다. 또한 《문화건설》의 「발간사」에서 ‘서양문화는 근본적으로 중국에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중국공산당을 공격하기를 ‘공산당이 중국에 와서 토비에 붉은 색 깃발을 하나 더 꼽은 것과 같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과학운동으로 과거를 검토하고 신생활 운동으로 현재를 파악하고, 문화건설운동으로 장래를 창조한 다음에 중국 민족이 부흥된다’고 하면서 ‘국내외에 있는 인사와 당원 동지들의 인식하지 않는 가르침을 달라’고 하였다.⁹⁾

6) 蔣中正, 「新生活運動之準則」, 《革命文獻》(新生活運動史料), 第68輯, p.24.

7) 蔣中正, 동상, p. 56.

8) 鄧元忠, 「新生活運動之政治意義闡釋」, 《抗戰前十年國家建設史研討會論文集》 上冊, 民國 73年, p. 41.

9) 「발간사」, 《文化建設》, 第1卷 第1期, 1934. 10. 10.

진립부는 「文化建設의 前夜」에서 '5.4이래 모든 문화공작은 …… 대부분 파괴되고 고유문화가 파괴되었다. …… 오늘날 고유문화를 다 떨어진 쉼신짝처럼 버려 이러한 상태아래에서 민족이 계속 살아남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¹⁰⁾ 그리고 중국의 고유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민족의 신문화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민족의 옛 특성을 연구하여야 한다. 중국민족의 특성은 가장 우수하며 그 우수한 점은 至大至剛, 至中至正에 있다'고 하였다. '…… 이후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고유의 지대지강 지중지정의 민족 특성을 회복하고 다시 禮義廉恥의 정신으로 견강한 조직과 기율을 형성하고, 다시 발전된 과학을 이용하여 인민이 필요로 하는 衣食住行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진립부는 문화건설의 이론을 선전하면서 이로부터 독서운동을 유도하여 「문화와 中國文化의 建設 - 三民主義 文化建設의 綱領」, 「讀書運動의 眞義 - 中國文化建設協會浙江分會에서의 말」, 「民族復興과 讀書運動-全國讀書運動大會의 開幕詞」, 「科學과 人生」 등을 발표하였다.¹¹⁾

이로 보면 문화건설이란 바로 중국고유문화와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외국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자는 것이다. 이는 양무운동 때에 제기되었던 양무파의 '中學爲體 西學爲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가 선전하는 문화건설은 바로 중국 고유의 윤리 도덕을 부흥시키려는 것이다.¹²⁾

국민당은 문화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1934년 10월에 중국문화

10) 陳立夫, 「文化建設之前夜」, 《華僑半月刊》, 제46기, 1934. 5. 1(戴知賢, 《十年內戰時期的革命文化運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8, p. 285에서 재인용)

11) 戴知賢, 《十年內戰時期的革命文化運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8, p. 286.

12) 戴知賢, 《十年內戰時期的革命文化運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8, p. 286.

건설협회를 上海에서 성립시키고 진립부를 이사장으로 삼았으며, 陶希聖·樊仲雲 등이 참여하였다. 이 협회는 민족정신·과학정신·통일정신·창조정신을 표방하였으며 동시에 《문화건설》이란 월간 잡지를 창간하여 기관지로 삼았다. 중국문화건설협회는 각 지방에 분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주장을 선전해 나갔다. 특히 중국본위문화건설의 토론은 실제로 정치성의 활동이었으며 또한 당시 추진되고 있던 신생활 운동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중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중국본위의 문화건설선언과 중국본위문화

1935년 1월 10일에 북평과 상해·남경의 陶希聖·何炳松·薩孟武·樊仲雲·武埏干·孫寒冰·黃文山·章益·陳高備·王新命 등 10명의 교수가 연명으로 《문화월간》에 「中國本位の 文化建設宣言」(또는 10教授宣言 혹은 一十宣言)을 발표하였다.¹³⁾ 선언에서 '중국의 정치 형태 사회조직과 사상의 내용과 형식은 이미 그 특징을 잃어버렸다. 이 특징 없는 정치 사회와 사상이 가르친 인민은 이제 점점 중국인이라 할 수 없다. …… 문화영역으로 전망해 볼 때 현대 세계 안에 확실히 중국은 이미 없어졌다. 중국의 영토 안에도 이미 중국인이 거의 없다. 중국이 문화영역에서 일어서고 중국의 정치·사회·사상에서 중국의 특징을 구비하려면 반드시 중국 본위의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 당시의 문제를 국가건설에 있다고 보면서 '정치 경제 등 방면에서의 건설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문화 건설 공작 역시 착수되어

13) 《文化建設》 第1卷 第4期, 1935. 1. 10.(胡適의, 《胡適與中西文化》, 水牛出版社, 民國56, pp. 127-131); 蔡尙思主編, 《中國現代思想史資料選編》 제3권, 浙江人民出版社, 1983.

야 하는 것이 절박한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떻게 중국문화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급히 토론되어야 할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복고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고대의 중국은 이미 역사가 된 것이며,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없으며 반복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미국과 영국을 모방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그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이 아닌 중국은 그 독특한 의식 형태가 있다. 또한 중국의 현재는 농업의 봉건사회와 공업사회가 바뀌는 시기인데 이미 완전히 공업시대로 들어간 영국과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므로 완전히 영국과 미국을 모방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영국과 미국을 모방하자고 주장하는 이외에 또 두 과가 있는데 하나는 소련을 모방하자는 것이고 또 한과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모방하자는 과다. 그러나 그 착오는 영국과 미국을 모방하자는 사람과 같이 모두 중국의 공간적 시간적 특수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선언에서 '중국은 중국이므로 …… 이시기 중국에서 필요한 즉 중국 본위의 기초여야 하며, 고대의 중국을 찬미해도 무용하며 …… 과거의 모든 것을 검토하여 남길 것은 남기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하며, 구미의 문화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서양 전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버리는데 그 표준은 현대 중국에 필요한 것이며, 중국본위의 문화건설은 창조이어야 하며 세계대동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不守舊·不盲從·中國本位에 근거하여 비평태도를 취하고, 과학방법을 응용해서 과거를 검토하고 현재를 파악하고 장래를 창조하자'고 하였다.

이 선언은 비록 문장으로 보아 당시 어느 정당이나 정파 또는 주의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중서문화에 대한 태도에서 중국의 특수성과 시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기본 정신은 국민당의 이른바 문화건설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선언이 발표되자 국민당 통치지구의 신문은 대대적으로 이를 전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언을 발표한 10명의 교수는 당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인들의 관심을 끌기 족하였다. 또한 이 선언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중국문화건설협회와 당시 C·C 단의 陳立夫가 또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였는가 하면 또한 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상해의 《時事新報》와 《新聞報》에서는 ‘문화운동자들이 철두철미하게 새롭게 인식한 것이며 또한 중국문화노선의 정확한 방침’이라고 하였다.¹⁴⁾ 西安의 《新京日報》는 ‘각계의 인사들은 한 봉지의 청량제를 마신 것과 같아 모두 새롭게 깨어났다’고 하였다. 남경의 《中央日報》는 ‘중국을 본위로 하는 문화를 건설하자는 것은 바로 중국 지식계급의 새로운 각성’이라고 하여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소수의 신문에서는 그렇지도 않았다. 예를 들면 천진의 《大公報》에서는 선언은 ‘유명무실’하다고 하였다.¹⁵⁾

도회성은 선언이 발표된 후에 上海·南京·北平과 濟南에서 ‘중국본위문화건설문제’ 좌담회를 소집하였는데¹⁶⁾, 여기에는 대학 교수 신문 잡지사의 주필과 그밖의 문화인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많은 문화인들이 《문화건설》월간·《獨立評論》·《申報》·《大公報》·《大美晚報》 등에서 토론을 전개하였는데, 시작한지 반년동안에 100만 여자에 달하는 장단편 글 100편 이상이 발표되었다.¹⁷⁾

대다수의 학자들은 선언에서 제출된 관점을 원칙상 찬성하는 편이었다. 이는 대다수의 문화인들이 봉건 복고를 반대하고, 또한 전반서화의 심리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본위문화건설은 원칙만을 제시하였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빈말로

14) 《中國文化建設討論集》，上，編輯書店，pp. 12-3, 26.

15) 傅長祿，〈中國現代文化史略〉，吉林大學出版社，1991，p. 206.

16) 上海의 좌담회에는 참석자가 30여명이었다.(孫廣德，「中國本位的文化建設問題之爭議檢討」，〈中華民國歷史與文化討論集〉 제3책，1981，p. 471，주5).

17) 馬藝若·樊仲雲이 이 글을 모아 《中國文化建設討論集》과 《中國本位文化建設討論集》을 출판하였다.

흐를지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인사들은 선언 가운데 「본위」·「중국본위」·「중국본위의 문화」 등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潘光旦은 「본위」 두 글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 건설선언 가운데 설명은 되었지만 8·70% 정도에 불과하며, 6·70%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¹⁸⁾ 張熙若도 「中國本位」 4字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관계가 없는 우리들은 오리무중에 떨어져있어 이 명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¹⁹⁾

蔡元培는 선언에서 제시된 '좋은 것을 선택하여' 원칙은 추상적 이론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무엇이 좋은 것이며 어떤 것을 중국인들이 좋은 것이라 하겠느냐며 비교연구를 통하여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결정하고 취한 것을 계통적으로 잘 편제한 다음에 문화건설방안을 만들어야 비로소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洋務運動 때 張之洞이 제창하였던 中體西用의 표어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²⁰⁾

문화계 인사들의 비평을 받게 되자 본위문화선언을 발표한 10명의 교수는 1935년 5월 10일에 「우리들의 종합적 답변」을 발표하여 본위문화의 기초와 이 시기 중국에서의 필요 내용을 해석하였는데, 인민의 생활을 충실히 하여 국민생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생존을 쟁취하기 위함이라 하고 중국본위의 문화건설은 민족 자신력을 표현하는 일종이며 적극적인 창조이며 반제 반봉건도 바로 이러한 창조과정의 필연적

18) 潘光旦, 「談《中國本位》」, 《中國本位文化討論集》(帕米爾書店編), 同社, 臺北縣, 民國 69年, p. 105.

19) 張熙若, 「全盤西化與中國本位」, 《國聞周報》第12卷 第23期, 1935. 4.(《從'西化'到現代化》, 羅榮渠主編, 北京大學出版社, 1990, p. 422.)

20) 蔡元培, 「復何炳松函」, 《蔡元培全集》, 第6卷, 中華書局, 1988, p. 484.

인 사명이라고 하였다.²¹⁾ 이렇게 자신들의 본위문화선언이 마치 민족의 생존과 반제 반봉건의 사명인 것처럼 하여 종합적 답변이 나온 다음에 본위문화의 토론은 다시 새로운 열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종합적 답변」은 예기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다. 선언을 지지 하였던 교수가 총체적 답변에 대한 평에서 ‘三民主義는 중국 현재 모든 조치의 근거가 되고 있다. 10교수도 국민당의 黨務에 힘을 썼던 인물들이어서 발표한 선언도 이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새로운 사정아래 삼민주의의 이론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본위문화의 기초를 인민생활을 충실히 하고 국민의 생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생존을 쟁취하는데 두었다면 이는 三民主義가 二民主義로 된 것이다.²²⁾ 즉 삼민주의에서 民權主義를 포기한 국민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때문에 중국본위문화의 건설은 바로 중국의 독재적 국가사회주의의 문화라는 지적이었다.

張熙若도 「종합적인 답변」을 분석한 다음에 중국본위문화의 요의는 바로 민권주의를 취소한 것이며 민권주의를 취소한 것이 삼민주의의 최고 단계의 발전이나 하고 더욱 분명하게 중국본위문화건설운동은 바로 독재정체건설운동이라고 지적하였다.²³⁾

이로 볼 때 중국본위문화건설론의 토론은 실제로 정치성의 활동이며 당시 추진되고 있던 신생활운동의 일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뜻은 중국 고유의 봉건문화 전통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국민정부에 이롭지 못한 사상 문화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시킴에 있었다.

21) 《中國文化建設討論集》，중편, p. 183.

22) 王西微, 「中國本位文化要義」, 《中國文化建設討論集》, 中編, p. 236.

23) 張熙若, 「全盤西化與中國本位」, 《從「西化」到現代化》, p. 458.

4. 全盤西化論의 등장 배경과 의미

신문화 운동시기 중서문화논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봉건주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서양의 새방법을 채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다 배우자고 고취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들의 주장은 중국문화를 근본적으로 서방화시키는 것으로 서방 자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대체하자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서방문화를 받아들여자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를 제기한 것은 결코 우연하게 한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방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중국문화가 서양문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국의 위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유학에서 돌아온 신지식층은 중국을 구하는 길은 개량하는 길이고 그 방법을 서양에서 구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문화 운동시기에 서양을 배우자라는 주장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배우자, 받아들여자는 주장은 없었다. 전반서화론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27년 이후로 그 의미는 구미의 자본주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자는 것이다. 그리고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29년이며 그 대표적 인물이 胡適과 陳序經이다. 즉 호적이 이해 영문 《中國基督教年鑑》에 「今日中國의 文化衝突」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Wholesale Westernization, Wholehearted Moderniz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연감이 출판된 다음에 사회학자 潘光旦교수가 영문 《中國評論周報》에 서평을 발표하였는데, 호적이 사용한 두 용어에 대하여 전자는 全盤西化, 후자는 全力으로 現代化 혹은 充分한 世界化라 번역하고, 그는 전력 현대화는 찬성하여도 전반

서화는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全盤西化란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²⁴⁾

호적이 제시한 전반서화론은 본래 충분한 세계화의 동의어로서 제시된 것이고 그 스스로도 오해의 소지가 많아 이를 정식으로 해명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²⁵⁾ 때문에 호적은 전반서화론자들로부터 절충파란 이름을 듣게되었다.

그러나 진서경은 문자 그대로 전반서화론을 제창하였다. 그는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에 걸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때부터 전반서화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33년 12월 29일에 廣州 中山大學에서 「中國文化의 出路」란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서양근대문화가 확실히 우리들의 것보다 진보되어있다. …… 이론적으로 보아 서양문화는 현대 하나의 추세이다. …… 비교해보아도 중국의 도덕은 서양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의 '전반서화'에 관한 관점을 설명하였다.²⁶⁾

진서경은 전반서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1)문화 자체는 하나의 계통으로 분리할 수 없어 한 방향으로 변동이 일어나면 다른 방면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서양문화를 받아들여려면 반드시 성심성의껏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서양 문화는 현대화의 한 추세이다. 그것은 세계 각국 문화의 좋은 점을 포함하고 있어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문화이다. 그러나 중국문화는 漢代이래 지체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였으며 현대 환경과 추세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3)문화 자

24) 처음으로 전반서화란 용어는 1920년대 호적이 썼다는 설(鄭師渠,《中國傳統文化漫談》,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0, p. 212)과 1934년에 처음으로 진서경이었다고 주장하는 설(董士偉, 「全盤西化論」, 《教學與研究》, 1991년 제 1기).

25) 胡適, 「充分世界化與全盤西化」, 《大公報》, 1935. 6. 23.

26) 陳序經, 「中國文化之出路」, 《從「西化」到現代化》, 羅榮渠主編, 北京大學出版社, 1990, pp. 370-5.

체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여야 하는 것이다. 문화가 멸망되면 그 민족도 따라서 망한다. 4)중국문화의 갖가지는 서양문화만 못하다. 우리는 문화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발전하지 못하였다. 5)전반서화만이 문화적 타성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5. 전반서화론자의 중국본위문화론 비판

중서문화관계의 각도에서 10교수의 본위문화론에 반대한 것은 서화파의 호적과 전반서화파의 진서경 등이었다. 시작은 선언이 발표된 다음에 吳景超가 중국본위문화의 건설을 지지하고 또한 진서경의 전반서화 관점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진서경과 그 밖의 전반서화를 주장하거나 또는 전반서화에 동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기회로 전반서화의 주장을 발표하였다.²⁸⁾

호적은 10교수 선언의 복고 본질을 분명하게 해석하였다. 호적은 '중국본위의 문화건설은 바로 중학위체 서학위용의 최신택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그들이 수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보수 심리라고 하였다.²⁹⁾

호적은 문화 타성의 관점을 갖고 10교수가 중국본위를 유지하려는 착오를 비평하고 서화의 이유를 천명하였다. 즉 호적은 '10교수의 근본 착오가 문화 변동의 성질을 잘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³⁰⁾ 즉 문화 자신이 보수적인 것을 모르고, 문화변동이 아무리 격렬

27) 陳序經, 「中國文化之出路」, 《從'西化'到現代化》, 참조: 이밖에 진서경의 글로는 「東西文化觀」(《社會學刊》, 第2卷, 第3期), 「關於全盤西化答吳景超先生」, 「再談全盤西化」를 참조.

28) 孫廣德, 전개논문, p. 460.

29) 胡適, 「試評所謂『中國本位的文化建設』」, 《胡適與中西文化》, 水牛出版社, 民國 56年, p.133

하여도 고유문화의 근본적인 보수성을 없앨 수 없다고 하였다. 신세계 신문명을 받아들이면 구문화의 타성도 자연히 절충 조화된 중국본위의 신문화라고 하였다.

사실 호적은 문화타성론을 갖고 전반서화를 주장한바 있었다. 1935년에 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나는 완전히 진서경선생의 전반서화론을 찬성한다'고 하였다.³¹⁾ 그러나 이해 6월에 《대공보》에 글을 발표하여 정식으로 이 구호를 버리고 전반서화란 100%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성립되기 쉽지 않다며 전반서화란 말보다는 충분한 세계화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충분이란 수량상으로 양껏 또는 다란 말이며 정신상으로는 전력을 다하여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³²⁾ 그는 이렇게 제안한 이유를 '전반이란 말을 피하면 번쇄한 논쟁을 피할 수 있고, 전반이란 글자를 피하면 동정적 찬조를 얻기가 쉽고 수량적으로 엄격하게 전반서화는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³⁾ 호적은 충분한 세계화란 용어를 쓴다면 吳景超·潘光旦·張佛泉·梁實秋·沈昌化나 종합적 답변을 쓴 10교수도 우리의 동지이지 論敵은 아니라고 하였다.

물론 전반서화를 찬성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도 전반서화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서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³⁴⁾ 嚴既澄도 전반서화에 찬성하였으나 그는 서화란 말이 부당하고 전반이란 두 글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西化는 '현대화'로, 전반은 '盡量'으로 고치자고 하였다.³⁵⁾ 또한

30) 동상, p. 135; 《從'西化'到現代化》, pp. 425-427.

31) 適之(胡適), 「編輯後記」, 《獨立評論》, 第142期, 1935. 6.

32) 胡適, 「充分的世界化與全盤西化」, 《從西化到現代化》, pp. 553-5. (原載, 《大公報》, 1935. 6. 21)

33) 동상.

34) 孫廣德, 전계논문, pp. 461-2 참조.

35) 嚴既澄, 「我們的總答復'書後-向'中國本位文化建設宣言'的十位起草者進一言」, 《從'西化'到現代化》, pp. 479-485.

전반서화론에 대단히 동정적이었던 張佛泉도 '전반서화를 이상으로 삼지만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화학습은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게되어 있다. 서화에도 輕重과 緩急이 있어 단번에 전반서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³⁶⁾ 그러나 진서경은 이와 같은 장불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목조목 반박하고 전반서화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6. 중국본위문화론자의 전반서화론 공격

본위문화론자들은 당연히 전반서화론자의 반대자였다. 10교수의 한 사람인 王新命은 「全盤西化論의 錯誤」란 글을 발표하여 '전반서화론자들은 중국 몇천 년 이래의 역사와 4억만 민족의 문화산물을 잃어버리고 있다. 전반서화의 결과 서양인의 쓰레기통 안의 쓰레기를 가지고 중국인들이 밥그릇 안의 흰밥을 대체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단지 서양의 좋은 점만을 보고 나쁜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계속하여 전반서화를 반대하고 외래문화의 수요를 주장하고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어 스스로 멸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³⁷⁾

뒤이어 10교수들이 발표한 우리의 종합적 답변에서도 명확하게 전반서화를 반대하였다. 이들은 '외래 문화의 흡수는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어 스스로 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⁸⁾

본위문화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전반서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吳景超는 진서경의 문화 계통설을 반대하고 '문화 자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단지 일부분의 진리만을 포함하고

36) 張佛泉, 「西化問題之批判」, 《國聞周報》 第12卷 第12期, 1935, 4(《從「西化」到現代化》) p. 434.

37) 王新命, 「全盤西化論的錯誤」, 《從「西化」到現代化》, p. 446.

38) 「我們的總答覆」 참조.

있다. 기차와 레일이나 남녀의 공학 등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양 전등을 사용한다고 서양의 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였다고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가' 라 하여, 전반서화론자가 주장하는 문화는 모두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경초는 '서양문화는 복잡하고 모순이어서 전반서화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³⁹⁾

張熙若도 첫째, 전반서화론자의 주장이 문화단위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물론 현대과학이 없으면 현대공업이 있을 수 없으며 현대 자본주의와 현대노동문제, 근대 사회주의와 근대 人道觀念, 人權觀念, 人格觀念, 근대 학술과 진화관념은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어떤 것들은 분리시킬 수도 있다. 일본인들이 서양의 과학을 완전히 흡수하였지만 동시에 자기스스로 大和魂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소련도 서구와 미국의 생산도구를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본주의를 거절하였다. 둘째, 전반서화론자들은 서양의 것이 무엇이든 좋고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데 중국의 예술이나 건축 등 중국에도 서양보다 좋은 것이 있다며 전반서화를 반대하였다.⁴⁰⁾ 오히려 장희약은 중국의 현대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1.자연과학을 발전시키자 2.공업발전을 촉진시키자 3.각종 현대학술을 제창하자 4.사상적으로 과학화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중국인의 사상·태도·일하는 방법이 현대화·효율화·합리화 될 것이라 하였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자로 鄒韜奮·李公樸·艾思奇 등은 중국본위문화론과 국민당의 우민정책을 비판하는 선언을 발표였다.⁴¹⁾ 트로츠키파의 葉青(즉 任曙)은 중국본위문화설은 한마디로 국가주의의 냄새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주의의 냄새를 갖고 있으며⁴²⁾ 전반서화론은

39) 吳景超, 「建設問題與東西文化」,《獨立評論》, 第139卷, 1935, 2(《從「西化」到現代化》, p. 446)

40) 張熙若, 「全盤西化與中國本位」, 《從「西化」到現代化》, pp. 448-453.

41) 丁守和主編, 《二十世紀中國史綱》, 河南人民出版社, 1994, p. 446.

서양제국주의 문화를 모방하자는 것으로 중국인을 제국주의 문화의 奴隸와 買辦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였다.⁴³⁾

7. 논전의 의의

중국본위와 전반서화는 모두 중서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일종 태도이다. 전자의 실질은 복구이며 후자의 본질은 서양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중국본위를 반대하건 전반서화 혹은 전반서화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 각기 자기들의 주장을 제출하였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관점으로 자유접촉과 충분한 세계화(胡適), 현대화에 노력, 현대화를 다함(張熙若·嚴既澄), 서학위체 중학위용(熊夢飛⁴⁴⁾)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많은 사람의 토론을 거쳐 중국문화에 대하여건 또는 서양문화에 대하여건 모두 분석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며 무조건 중국문화를 보존하여야 한다거나, 서양문화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중서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인 기초 위에 중국 특징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전반서화와 본위문화의 논전은 중서문화의 문제에서 서화파와 절충파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라고도 하였다.⁴⁵⁾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대화로서 서화를 대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중국현대화에 대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자연과학의 발전과 현대화 공업을 촉진시키고, 현대학술을 제창하여 과학화된 사상방법을 양성하였다.

42) 葉青, 「讀「中國本位文化建設宣言」以後」, 《文化建設》 第1卷 第5號, 1935, 2.

43) 葉青, 「全盤西化?殖民地化?」, 《從「西化」到現代化》, pp. 555-6.

44) 熊夢飛, 「談「中國本位文化建設」之闕天」, 《從「西化」到現代化》, pp. 513-532 참조.

45) 王中江, 「全盤西化與本位文化論戰中之胡適」, 《胡適與現代中國文化轉型》(劉青峰編), 中文大學出版社, 1994, p. 100.

결국, 논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록 의견이 다르고 또 격렬하게 반대 비판하였으나 모두가 중국문화의 출로를 위하여 그리고 중국의 장래를 위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馮友蘭의 결론처럼 중국본위문화건설론과 전반서화론의 논쟁은 사상의 혼란만을 가져왔다고⁴⁶⁾ 간단히 결론하기보다는 서양문화 수용에 대한 중국인의 대응을 찾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8. 결 론

30년대 중반 이르러 5.4이래 중서문화논쟁의 계속으로 또한 심화된 것으로 중국본위문화와 전반서화론의 논전이 일어났다. 특히 중국본위문화론의 제기가 정치성을 띤 것이라 하더라도 본위문화론 자체에 대하여 열띤 논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중국본위의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며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물론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반서화를 주장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자의 논쟁은 가열될 수 있었고 정치성을 흐리게 하였다.

그리고 본위문화론자라도 무조건 중국 전통 문화만을 고집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점과 결점을 인식하고 서양에서 보완하는 주장을 폈다. 특히 이 논전에서는 중국의 미래를 논의하면서 현대화론도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중국 문화 문제에 관한 논전은 결과적으로 중국본위문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는 전반서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들의 관점을 바꿔 나갔다. 토론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중국

46) 馮友蘭, 《中國現代哲學史》, 中華書局(香港), 1992, p. 139.

문화의 복고 운동에도 반대하였으나 전반서화에도 반대하였다. 그리고 현대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중국 문화를 일으키고 중국의 문예를 부흥시키려는 경향으로 나갔다.